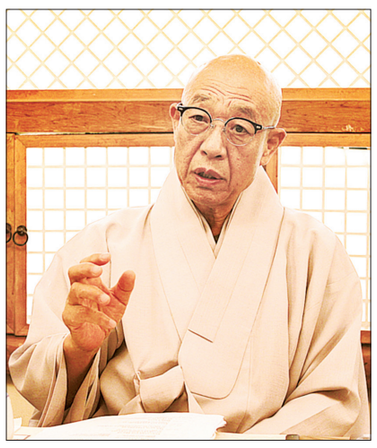
“인도철학은 불교학 뿌리, 함께 가야”

동국대 인도철학총동문회 심포지엄
“학과 재건 · 연구 저변 확대 강구”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10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 동국대학교 인도철학총동문회 추계 심포지엄’.


동국대학교 인도철학총동문회장 선일 스님.

“불교는 고대 인도의 종교·철학적 전통 위에서 피어났습니다. 기초 학문인 인도철학이 약해지면 그 위에 서 있는 불교학 역시 취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함께 가야만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물이 나옵니다.”

인도철학의 기초 복원 없이는 세계적 흐름에 맞춘 한국 불교학의 발전도 어렵기에, 인도철학과 불교학의 깊은 이해가 함께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재관 인도철학회장(상지대 교수)은 10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 동국대학교 인도철학총동문회 추계 심포지엄’에서 “지난 20~30년간 해외 학계는 인도학과 불교학의 경계를 허물며 혁신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한국 학계는 단기 성과와 경제 논리에 밀려 과거보다 후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회장은 이날 ‘한국에서 인도철학 연구의 현황과 미래’란 주제 발표를 통해 과거 동국대 인도철학과에서는 산스크리트어를 시작으로 팔리어, 티베트어 등 3대 고전어를 모두 이수해야 했으며, 졸업 전 원전 강독이 이뤄져 대학원 진학 후에도 원전 연구에 부담이 없을 정도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또 인도 불교사, 베다, 우파니샤드, 육파철학은 물론, 인도 신비주의, 인도미학, 인도 이슬람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학문적 저변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1996년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에 따른 학제 개편으로 분위기는 급변했다. 심 회장은 “선학과·불교학과·인도철학과의 통폐합으로 학생들에게 당장 쉬운 과목만 선택하게 하는 구조가 정착되면서 교원 수가 줄고 커리큘럼이 대폭 축소됐다”며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량과 학문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불교대학원과 불교학술원의 교원 중 인도학이나 인도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수십 년간 한국 불교학계가 수많은 학자를 배출했음에도 세계 학계를 주도하는 거장이 나오지 못한 이유 역시, ‘기초 토대(코어)’의 부실에서 찾았다. 한국 학계가 인도철학을 ‘외도’로 폄하하며 편파적인 공부에 머무는 사이, 세계 학계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지적이다. 심 회장은 “최근 20~30년간 해외 학계에서는 인도철학자와 불교학자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유기적으로 통합해 혁신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전 문헌에 대한 인접 학문적 접근을 통해 불교 경전을 새롭게 해석하는 혁신적 연구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심 회장은 해외에서는 베다학, 고전요가, 탄트라 등 다양한 분과에서 수많은 학자가 모여 연구 중이며, 이들 학자 수를 합치면 불교학자 전체 규모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불교 문헌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 배경이 된 고전인도학과 종교·문화적 전통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어 UCLA의 카렌 멀둔 교수가 불교 문헌 〈아바다나샤따까〉를, 세계적인 마하바라타 연구자인 힐테베이텔 교수는 마명 보살의 〈붓다차리타(불소행찬)〉를 연구하면서 각각 베다 문화의 결혼 의례와 인도 서사 전통을 통해 불교 문헌을 새롭게 해석해 낸 사례를 들었다. 심 회장은 인도철학 관련 학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불교학 연구도 발전할 수 있다며 동국대 인도철학과와 고전인도학의 교육 기반을 부활시키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동국대학교 인도철학총동문회가 과거 인도철학과 폐지 결정의 적절성을 재조명하고 반성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총동문회는 앞서 10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인도철학 연구 환경을 고려할 때 관련 논의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학과 부활·신설을 목표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총동문회장 선일 스님은 “조 단위의 큰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인도철학과를 없애고 축소한 것은 건학 이념을 무시한 비합리적 처사”라며 “동문회 차원에서 인도철학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 고취하고, 인도불교철학 저변을 넓혀 한국불교의 세계불교화를 이끌 실천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정사 땅설법 속 불교지화

한국땅설법학회 제5회 학술대회
10월 17일 국립민속박물관서

한국땅설법학회(회장 김용덕)와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장상훈)은 10월 17일 오후 1시 국립민속박물관 전통문화배움터에서 ‘불교지화 장엄의 계승과 의의’를 주제로 제5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삼척 안정사 주지 다여 스님이 전승해 온 전통 불교지화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조명하고, 불교지화의 보존·전승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조성금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불교민속·불교미술·사상 분야 전문가 4명이 발표자로 나선다.

기조강연은 편무영 일본 아이치대학 명예교수가 맡아 ‘불교민속학적 연구 방법과 지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편 교수는 붓다의 가르침과 비유가 공존하는 불교민속을 규명하기 위해 경전 연구와 현장 비교 분석의 병행을 강조하고, 안정사 땅설법을 불교민속학 측면의 최적 연구 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또 △오정아 중흥고 교사의 ‘땅설법 속 지화, 불탄화(佛誕華)의 상징과 탄생게(誕生偈)의 의미 고찰’ △전영숙 연세대학교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의 ‘불교지화 불정화의 도상과 상징성-오불정다라니 신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이효림 씨(금강대 박사수료)의 ‘땅설법 지화의 법화경적 의미체계와 홍포 기능 연구-안정사 전승지화를 중심으로’ △신명숙 Eco 함께 가는 살풀이연구소 대표의 ‘교외별전(教外別傳)의 땅설법 지화와 바라춤 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진다.

발표 후에는 이수자 전 안성여자기능대학장과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의 총평과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배희정 기자

법정 스님 철학 조명 학술대회

맑고향기롭게 11월 8일 길상사서
학술상 시상식·수상 논문 발표도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이사장 덕조 스님)는 11월 8일 오후 1시 길상사 설법전에서 ‘법정 스님의 철학에 담긴 현대인의 삶과 비전’을 주제로 제2회 법정 스님 학술 대회를 개최한다.

김재성 능인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1부 학술세미나에서는 박경준 동국대 명예교수가 ‘기후위기 시대, 법정 스님의 무소유와 불교생태학적 실천론’을, 윤용복 아시아종교연구원장이 ‘탈종교 시대, 법정 스님의 삶이 던지는 비종교적 화두’를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논평은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교수와 송현주 순천향대 교수가 맡는다.

여태동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법정 스님의 사상 연구를 장려하고 한국불교 사상의 현대적 의의를 확장하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된 ‘법정 스님 학술상’의 수상 논문 발표회가 열린다. 전체 심사평 공개와 함께 수상자들의 연구 논문이 소개될 예정이다.

발표회에서는 대상 청라 스님의 ‘법정 스님의 무소유 사상과 인성 교육적 함의: 생태적 인성을 중심으로’, 최우수상 지엄 스님의 ‘법정의 떠남과 화성유, 무소유의 방편성과 개권현실’, 우수상 류원섭 씨의 ‘법정 스님의 무소유 사상의 현대적 재해석: 디지털 과잉 사회에서의 관계와 마음돌봄을 중심으로’가 각각 발표된다.

세미나에 앞서 개회식은 맑고향기롭게 이사장 덕조 스님의 개회사, 고영섭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장의 심사평 발표, 학술상 시상식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02-741-4696

배희정 기자

‘지관’의 본질을 탐구하다
〈止觀〉

밝은사람들硏, 25회 학술연찬회
11월 7일 동국대 본관 남산홀서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는 11월 7일 오전 10시 동국대 본관 남산홀에서 ‘지관, 함께 닦는가 따로 닦는가’를 주제로 제25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수행(명상) 3개년 기획의 두 번째 행사로, 이필원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를 좌장으로 5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는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통합과 분리’ 주제 발표를 통해 초기 경전의 지관 수행이 세분화된 과정을 추적하며 고요함(지)과 통찰(관)의 조화가 불교 수행의 본질임을 강조한다.

안성두 전 서울대 교수는 ‘대승불교 수행도에서 샤마타와 비파샤나의 작용 방식’을 주제로 ‘지관쌍운(止觀雙運)’ 개념의 성립과 변천을 살피고, 인도 불전이 깊은 정려(靜慮) 상태에서의 지관을 다룬 반면, 동아시아 불교의 〈기신론〉은 이를 일상 영역(행주좌와)으로 확장시켰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조석효 경남대 학술연구교수는 ‘티베트불교의 시네(止)-학통(觀): 수행구조와 시간성의 지평’ 주제 발표에서 지관의 결합 방식을 현상계의 인과적 시간성과 궁극적 실재의 탈시간성이 교차하는 근원적 차원의 문제로 제시한다.

이어 KAIST 명상과학연구소장 미산 스님과 엄성민 데이터리퍼블릭 대표는 ‘지관(止觀) 체계의 현대적 재정립-불교 지관 수행 전통과 AI 맞춤형 명상과학 통합 플랫폼의 메타융복합적 탐구’ 공동 발표를 통해 불교 지관 수행을 신경과학 언어로 재해석하고, ‘AI 맞춤형 명상과학 통합 플랫폼’을 제안한다.

권석만 서울대 명예교수는 ‘마음 멈추기와 마음 바라보기-지관 수행의 심리학’을 통해 지(止)를 ‘사고 방랑 감소’, 관(觀)을 ‘메타인지를 통한 수용과 통찰’로 재해석하며 지관의 심리학적 치유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주제 발표 후에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연찬회는 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연찬회 교재인 〈지관, 함께 닦는가 따로 닦는가〉(밝은사람들총서 21)는 10월 말 발간되며, 당일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배희정 기자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